도요보 - 신 3개년계획 발표

도요보의 섬유사업본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는 3개년 경영계획의 요점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단체(單體)로 매년 천억엔의 판매고를 유지하면서 채산성을 향상시켜 최종 년도에는 10억엔의 경상이익을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화합섬과 천연섬유로 나뉘어져 있던 섬유사업본부를 작년(2002년) 4월에 하나로 통합하였는바, 3개년 계획에서는 이 통합에 의한 강점을 잘 살려 다양한 소재와 케미컬기술을 잘 결합시킨 종합력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 있는 관계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관계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해외 사업소로부터는 주로 천연 섬유소재를 조달하게 되며, 기존 합판(合辦)회사와는 합판생산품을 도요보의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섭 중이다. 중국기업과도 도요보의 영업활동에 활용한다는 전제로 방직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섭중이다.

일본 내 방적설비는 해외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남아돌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는 22만추의 방적시설을 갖고 있고, 가동률은 80%정도이나, 앞으로 시설이 남아돌게 되면 가급적 시설규모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동률을 낮추어 생산을 조절할 방침이다.

3개년 계획에는 관계회사의 사업구조개혁도 담겨있으며, 기능이 중복되는 관계회사는 통합 재편할 방침이다. 또한 계획 첫 해인 2003년도에는 천연섬유 분야가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할 계획이다. 고정비의 압축이나 기능성 의류소재, 산업자재, 생활자재와 같은 경쟁력 강화사업의 확

대, 조달구조의 개혁이나 국내외 관계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한계이익을 유지하여 섬유사업 전체로는 경상흑자를 이루어 낼 계획이다.